

#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6.1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unlee@hanafn.com

## 하반기엔 AI와 제조업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

### 미국의 내구재 주문 두 달 연속 상승

- 하반기엔 인공지능과 산업 자동화(피지컬AI) 등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2026년 하반기 전망 'Trump Showtime: AI 슈퍼사이클 모멘텀 & 확장될 리쇼어링'을 통해 하반기 핵심 포트폴리오로 AI 관련 IT 하드웨어 인프라와 산업 자동화 기업을 추천했다. 미국의 제조 관련 지표에서도 AI의 긍정적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고,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 우리는 하반기 전망을 통해 인공지능이 두 가지 경로로 미국 제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 경로는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다. 미국의 건설 계획지표(Dodge Momentum Index)는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다. 계획지표가 12-18개월 선형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해 하반기부터 건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장비 렌탈 기업인 유나이티드 렌탈은 비수기인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 신규 데이터센터와 파생되는 전력 인프라 증가를 강조했다. 제조 시설도 늘고 있다고 했다.
- 두 번째 경로는 산업 자동화와 로봇틱스 산업의 확장이다. 미국의 리쇼어링 대상 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이 아닌 첨단 제조업이다. 미국의 무역지표에서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2025년 4월 관세 발표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과 수출은 매월 전년 대비 두 자릿수씩 줄고 있다. 중국을 대체할 파트너는 베트남과 대만이다. 베트남은 생필품 등 전통적인 제품 생산 기지다. 대만은 첨단 부품 생산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미국 상무부는 지정했다. 미국 본토에선 첨단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의 정밀 부품 기업 노벤타는 첨단 반도체(EUV/DUV 리소그래피 공정 등) 및 AI 제조 투자 수혜가 나타나고 있다. 자동화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현지시각 28일 발표된 미국의 4월 내구재 신규 주문은 3,460억 달러로 전월 대비 7.9% 확대됐다. 2개월 연속 MoM 증가세다. 방위산업 제품을 제외해도 3,203억 달러(MoM +8.1%)로 민간 제조 수요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신장비는 4월 한 달 신규 주문이 49억 6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 3.1% 늘었고 전년보다 65% 이상 확대됐다. 출하도 45억 8천만 달러(YoY +44%)다. 주문이 출하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수요가 공급을 앞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컴퓨터와 관련 제품도 4월 신규주문 28억 7천만 달러(YoY +26%)다. 연초 이후 누적 주문액은 10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억 달러 많다. AI 인프라 수요가 제조업 주문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증거다.
- 기계류 신규 주문은 4월 422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5% 증가했고, 연초 누적으로는 1,676억 달러(YoY +9.7%)다. 출하도 YTD 기준 418억 달러로 전년보다 8.7% 증가했다. 주문과 출하가 균형 있게 확장되고 있다. 자동화 설비 수요가 꾸준히 소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속 신규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리쇼어링 관련해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1차 금속 신규 주문은 YTD 1,181억 달러(YoY +10.6%), 가공 금속 제품도 1,757억 달러(YoY +7.1%)다. 관세 영향으로 미국내 조달 수요가 늘면서 소재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 데이터를 종합하면 두 가지 경로가 선명히 확인된다. AI 인프라 투자는 통신장비와 컴퓨터 주문 급증으로, 리쇼어링은 기계류, 금속 설비 투자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일시적 반등이 아닌 구조적 추세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신규 주문과 출하가 함께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실제 생산으로 소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반기 포트폴리오에 AI 관련 IT 하드웨어 인프라와 산업 자동화 기업을 담아야 하는 이유다.
- 하반기 전망 추천 종목: 1) 공급망 병목: MU, NVDA, STX, COHR, GLXY, 2) 시장 지형 변화 및 기업의 진화: AMD, AMZN, 3) 피지컬 AI: NOV, RRX, CGNX, TKR 등.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7,580.1	26,972.6	51,032.5	4,068.6	2,805.6
1W (%)	1.8	2.6	1.5	-1.1	-2.0

주) 5월 29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주(5월 25일~5월 29일) 리뷰: S&P 500 9주 연속 상승**

- 미국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S&P 500은 9주 연속 상승했다. 미국증시 투자자들의 강한 투자심리를 시사한다. 미국증시 3대지수는 모두 상승했다. S&P 500 +1.4%, 나스닥 +2.4%, 다우 +0.2% 등이다.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0.8%다. 나스닥의 강세 감안하면 기술주에 대한 강한 선호도가 유지되고 있다.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도 2.3% 상승했다. 성장주로 구성된 ETF(VUG)와 가치주로 구성된 ETF(VTV)는 각각 2.4%, 0.5% 올랐다. 변동성지수는 5.7% 하락했다.
- 시장참여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여부와 물가지표를 주시했을 것이다. 종전 협상 타결 여부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현지시각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백악관 상황실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게재했다. 종전 합의를 위한 핵심 전제 조건들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전면 금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 미국 주도 발굴 등이다.
- 이란은 미국과 달리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주중 교전이 있기도 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최종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은 서방의 고압적인 태도를 비난하면서 국가의 이익과 권리에 따라 이란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대해선 불법이며, 휴전 위반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메시지 교환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참여자들의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요인이다.
- 4월 PCE물가는 여전히 높지만 상승세가 단기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4월 핵심 PCE 물가 MoM은 +0.2%로 예상치 및 이전치인 +0.3% 대비 낮아졌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헤드라인 PCE물가지수는 3.8%로 예상수준이었지만 지난달 3.5% 대비 높아졌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요인은 관세와 유가다. 유가 상승에도 단기 인플레이션이 약해졌다는 점에서 관세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었을 여지가 있다. 기업들이 관세를 가격에 전가하는 것이 거의 마무리됐을 가능성도 있다.
- 상승 상위섹터는 정보기술(+5.1%), 경기소비재(+1.5%), 소재(+1.7%) 등이고, 하락 상위는 에너지(-5.0%), 필수소비재(-3.3%), 유틸리티(-1.3%) 등이다. 정보기술에선 소프트웨어(+8.1%)와 반도체(+5.9%)가 강세였다. 정보기술은 기업들의 호실적들이 긍정적 모멘텀이었다. 서버, 칩, 스토리지, 데이터 웨어하우스 등 AI와 관련된 전반의 수요가 강하다. 소비재에선 경기소비재와 필수소비재의 수익률이 같았다. 미국인들의 소비가 망가진 것은 아니지만 선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에너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해지면서 하락한 유가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 시장참여자들의 M7과 비-M7의 선호도는 유사했다. M7으로 구성된 ETF(MAGS)와 비-M7 ETF(XMAG)는 각각 1.9%, 1.6% 상승했다. M7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강세가 두드러졌다(MSFT +7.6%, META +3.6% TSLA +2.3%, AMZN +1.6%, AAPL +1%, GOOGL -0.7%, NVDA -1.9%). 마이크로소프트는 통합형 Copilot을 개발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Copilot 기능이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너무 흩어져 있다는 평가가 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앱 안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경쟁 AI 기업들에 대응해 사용률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 » 이번 주(6월 1일~6월 5일) 프리뷰: 고용지표, ISM, 연준인사 발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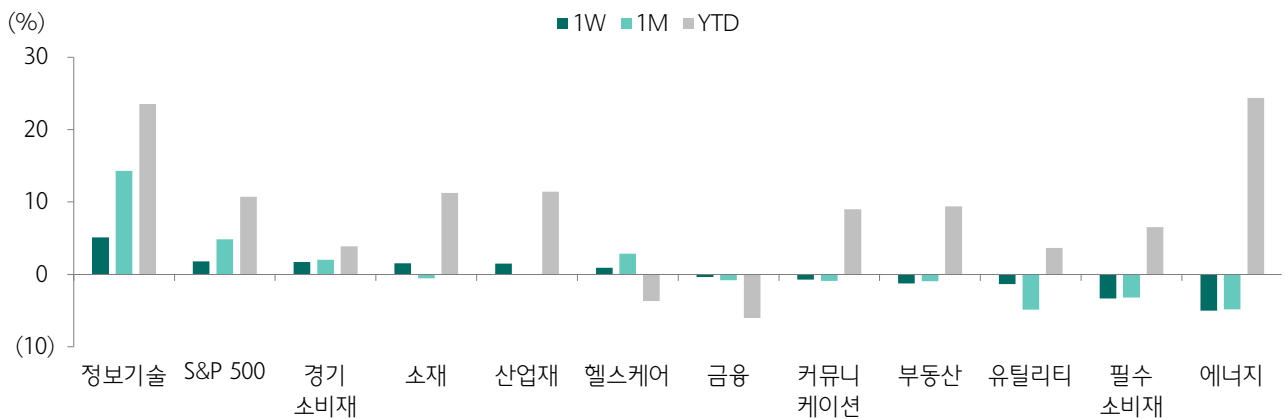
- 이번 주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은 고용지표와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집중될 여지가 있다.
- 이번 주 금요일(5일) 미국의 5월 실업률, 5월 비농업 고용지수 등이 발표된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참여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전쟁으로 인해 높은 유가 수준이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커졌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저에는 미국의 경제가 양호한 것도 있다. 이번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고 단기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 5월 비농업 고용지수의 예상치는 95,000 건으로 전월 115,000 건보다 약해질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5월 2일 미국의 스피릿 항공이 파산했다. 스피릿 항공은 미국의 초저비용항공사다. 미국 최초로 기내 수하물, 좌석 지정, 물 제공까지 유료화한 대신 순수 운임을 낮췄다(연번들링 시스템). 스피릿 항공은 성장을 위해 고금리로 기단을 무리하게 확장했고, 젓블루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쏟았다.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치면서 고유가가 결정타가 됐다. 스피릿 항공은 정부에 최대 5억 달러 수준의 긴급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 연방 교통부의 비 시민권자들에 대한 상업용 운전 면허(CDL) 취소 영향은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연방 교통부는 비 시민권자의 상업용 운전 면허의 자격 취득 및 갱신 허들을 높였다. 기존에는 취업허가가 있으면 받을 수 있었던 경우가 많았지만, 새 규정 이후에는 주로 고용 기반 비 이민 비자 보유자(H-2A, H-2B, E-2 등)로 자격 대상이 좁아졌다. 3월부터 일부 주 정부에서 시작됐다.
- ISM 제조업 PMI는 이전 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재 및 제조 관련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별 제조업 설문조사와 S&P 글로벌 제조업 PMI 속보치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우리가 주장한 것처럼 AI가 제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건설 관련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부품 생산 확대도 제조업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 이번 주엔 파월 의장 등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예정돼 있다. 지정학적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물가 하락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연준 인사들은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일 여지가 있다. 매파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정학적 위기가 야기한 물가 충격이 길어질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공급망 정상화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전 세계 국가들의 비축유 확보 수요가 유가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했다.
- 1일 휴렛 팩커드 엔터프라이즈, 3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도 있다. 두 기업 모두 AI 투자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다. 양호한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투자심리를 강화할 것이다. 2일엔 팔로알토 네트워크, 3일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등 사이버보안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다. 인공지능이 확대되면서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AI를 활용해 실적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실적이 기대된다.
- 이번 주 발표 예정인 경제지표로는 1일 5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예상치 55.3, 이전치 54.5) / ISM 제조업 PMI(예상치 53.3, 이전치 52.7) / 4월 건설지출 MoM(예상치 0.3%, 이전치 0.6%), 2일 2분기 애틀랜타 연방은행 GDPNoW(이전치 3.8%) / 4월 JOLTS 구인 이직건수(예상치 6.8M, 이전치 6.866M), 3일 MBA 30년 모기지 금리(이전치 6.65%) / 5월 ADP 비농업 고용 변화(예상치 110K, 이전치 109K) / 5월 S&P 글로벌 서비스 PMI(예상치 50.9, 이전치 51) / 5월 ISM 서비스 PMI(예상치 53.6, 이전치 53.6) / 4월 공장주문 MoM(이전치 1.5%) /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이전치 1,786k), 5일 5월 실업률(예상치 4.3%, 이전치 4.3%) / 5월 비농업 고용지수(예상치 95K, 이전치 115K) / 5월 평균 시간당 임금 MoM(예상치 0.3%, 이전치 0.2%) 등이 있다.
- 연설이 예정된 주요 인사로는 1일 파월 연준의장(다소 비둘기, 투표권 있음) / 월러 연준이사(중립, 투표권 있음), 2일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매파, 투표권 있음), 3일 바 연준 부의장(중립, 투표권 있음), 4일 로건 달러스 연은 총재(매파, 투표권 있음) /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중립, 투표권 없음), 5일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다소 비둘기, 투표권 없음) 등이 있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은 1일 HPE, 2일 PANW / DG / ULTA / GTLB, 3일 AVGO / CRWD / MDT / VEEV / M / AI, 4일 CIEN / IOT / PL / RBRK / LULU / BFa / DOCU 등이 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5/29)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7,580.1	0.2	1.8	4.8	10.2	11.3	28.2	10.7
나스닥	미국	26,972.6	0.2	2.6	7.4	19.0	15.9	41.1	16.1
다우	미국	51,032.5	0.7	1.5	3.1	4.2	7.9	20.7	6.2
STOXX600	유럽	626.0	0.1	0.1	2.4	-1.2	8.8	14.1	5.7
KOSPI	한국	8,476.2	3.6	8.5	28.4	35.7	116.2	214.2	101.1
KOSDAQ	한국	1,074.8	-2.7	-2.8	-9.9	-9.9	16.5	46.4	16.1
상해종합지수	중국	4,068.6	-0.7	-1.1	-1.1	-2.3	3.9	21.5	2.5
심천종합지수	중국	2,805.6	-1.9	-2.0	1.1	1.5	13.2	42.3	10.9
항테크지수	홍콩	25,182.4	0.7	-0.8	-2.3	-5.4	-3.3	8.1	-1.7
TOPIX	일본	3,957.2	1.4	1.7	6.1	0.5	18.5	41.2	16.1
니케이 225	일본	66,329.5	2.5	4.7	11.5	12.7	34.5	74.7	31.8
니프티 50	인도	23,547.8	-1.5	-0.5	-1.9	-6.5	-10.0	-4.9	-9.9
Vietnam	베트남	1,863.5	-0.0	-0.7	0.5	-0.9	9.5	39.8	4.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5.29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정보기술: 서버·칩·스토리지 등 AI 관련 전반의 수요 강세 속 기업들의 호실적이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하며 강세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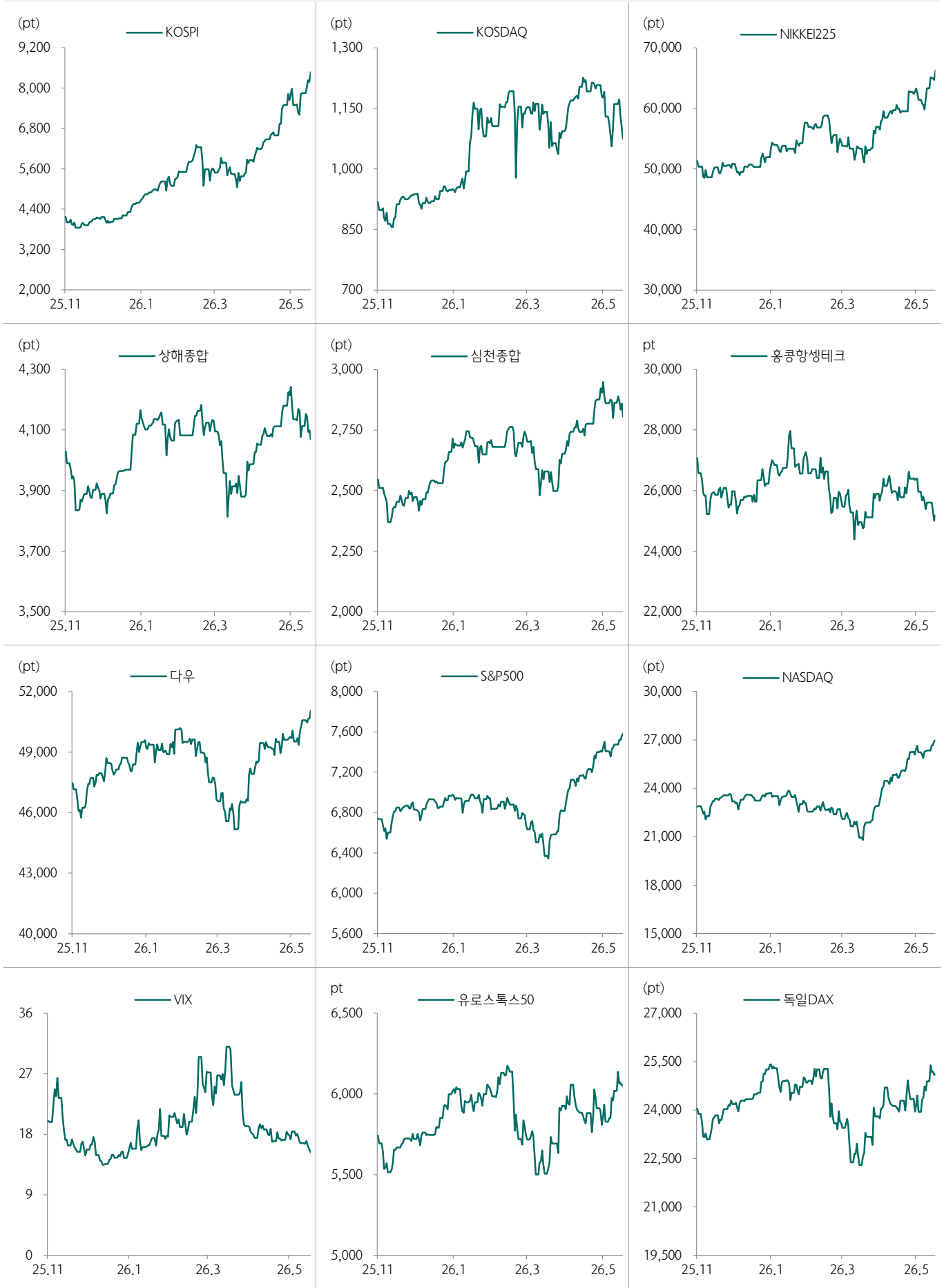
- 에너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유가 하락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약세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5/26	<p><b>마이크론, UBS 목표주가 3배 상향에 19.3% 폭등. 시총 1조 달러 돌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BS가 마이크론 목표주가를 535달러에서 1,625달러로 3배 가까이 상향하며 "AI가 메모리 산업에 가져온 구조적 변화가 구체화할수록 재평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힘. 메모리 업체를 경기민감 업종이 아닌 AI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재분류한 것으로, 마이크론의 1분기 영업이익률은 60%를 상회. 시장은 즉각 반응해 마이크론 주가가 19.3% 폭등한 895.88달러로 마감, 시총 1조200억 달러를 기록. 샌디스크·인텔·AMD 등도 동반 상승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이상 상승, S&amp;P500·나스닥도 나란히 사상 최고치 경신</li> </ul>
5/28	<p><b>미국 4월 PCE YoY +3.8%, 2023년 5월 이후 최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상무부, 4월 헤드라인 PCE가 YoY +3.8%(3월 +3.5%), 근원 PCE YoY +3.3%로 각각 2023년 5월·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운송 차질로 4월 휘발유 가격이 12.3% 급등한 것이 주요인으로, 전쟁 이후 누적 상승률은 50% 이상. 클리블랜드 연은 실시간 모델은 5월 헤드라인 PCE +4.06%, CPI +4.18%를 예상하며 5월부터 4%대 진입 가능성에 무게. 함께 발표된 1분기 실질 GDP 수정치는 1.6%로 속보치(2.0%)에서 하향 조정되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확산.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까지 기준금리 3.50~3.75% 동결 가능성을 점치는 중</li> </ul>
5/28	<p><b>젠슨 황 "대만에 매년 1,500억 달러 투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27일 타이베이 대만 본사 착공 기념행사에서 대만 투자 규모를 현재 연간 1,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 4~5년 전 100억~150억 달러에서 급증한 수치로, 대만 본사는 2030년 완공 목표. 황 CEO는 "대만은 AI 혁명의 진양지"라며 AI 공급망에서 대만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 행사에서는 TSMC 웨이저자 회장과의 짝꿍 만찬도 이뤄졌으며, 시총 합계 1경 원을 넘는 두 기업 수장의 회동은 양사 협력 심화 신호로 해석</li> </ul>
5/29	<p><b>엔트로픽, 기업가치 9,650억 달러로 오픈AI 제치고 세계 1위 AI 스타트업 등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트로픽이 시리즈 H에서 650억 달러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9,650억 달러로 오픈AI(8,520억 달러)를 추월. 지난 2월 3,800억 달러에서 불과 3개월 만에 약 3배 급등. 클라우드 코드의 폭발적 확산에 힘입어 연간 환산 매출도 470억 달러로 연초 전망치(300억 달러)를 크게 상회했으며 작년 매출(100억 달러) 대비 4배 이상 성장</li> </ul>
5/29	<p><b>스페이스X, IPO 목표 기업가치 1.8조 달러로 하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페이스X가 IPO 목표 기업가치를 기존 2조 달러 이상에서 최소 1.8조 달러로 하향 조정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 조달 목표액은 최대 75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 IPO가 될 전망. 로드쇼는 이르면 6월 4일, 공모가 확정은 6월 11일 예정.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2025년 매출은 187억 달러(전년 140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손실 49억4천만 달러로 전환.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위성 인터넷을 넘어 궤도상 데이터센터 구축 등 AI 인프라 기업으로의 진화를 강조</li> </ul>
5/29	<p><b>미·이란 60일 휴전 연장·핵 협상 개시 MOU 합의, 트럼프 최종 승인 대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 및 핵 협상 개시를 골자로 한 MOU에 합의했다고 약시오스가 보도. 합의는 26일 대부분 이뤄졌으며 양측 지도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 MOU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무제한 통과 보장, 이란의 30일 내 해협 기뢰 전면 제거, 이란의 핵무기 비추구 약속이 포함될 예정. 미국은 대이란 제재 완화 및 동결 자금 해제를 논의하기로 약속</li> </ul>
5/30	<p><b>엔비디아, 다음 주 첫 윈도우 PC용 프로세서 탑재 제품 공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만 컴퓨텍스와 샌프란시스코 MS 빌드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엔비디아 칩을 메인 프로세서로 탑재한 첫 윈도우 PC를 공개할 예정. MS 서피스 브랜드와 델 등 여러 PC 제조사 제품이 포함될 전망. MS는 AI 에이전트가 윈도우 PC에서 로컬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도 함께 공개 예정. MS의 첫 AI PC 전략인 코파일럿+ PC가 리콜 기능 보안 우려 등으로 부진했던 가운데, 세계 최고 인기 칩메이커인 엔비디아의 참전으로 AI PC 시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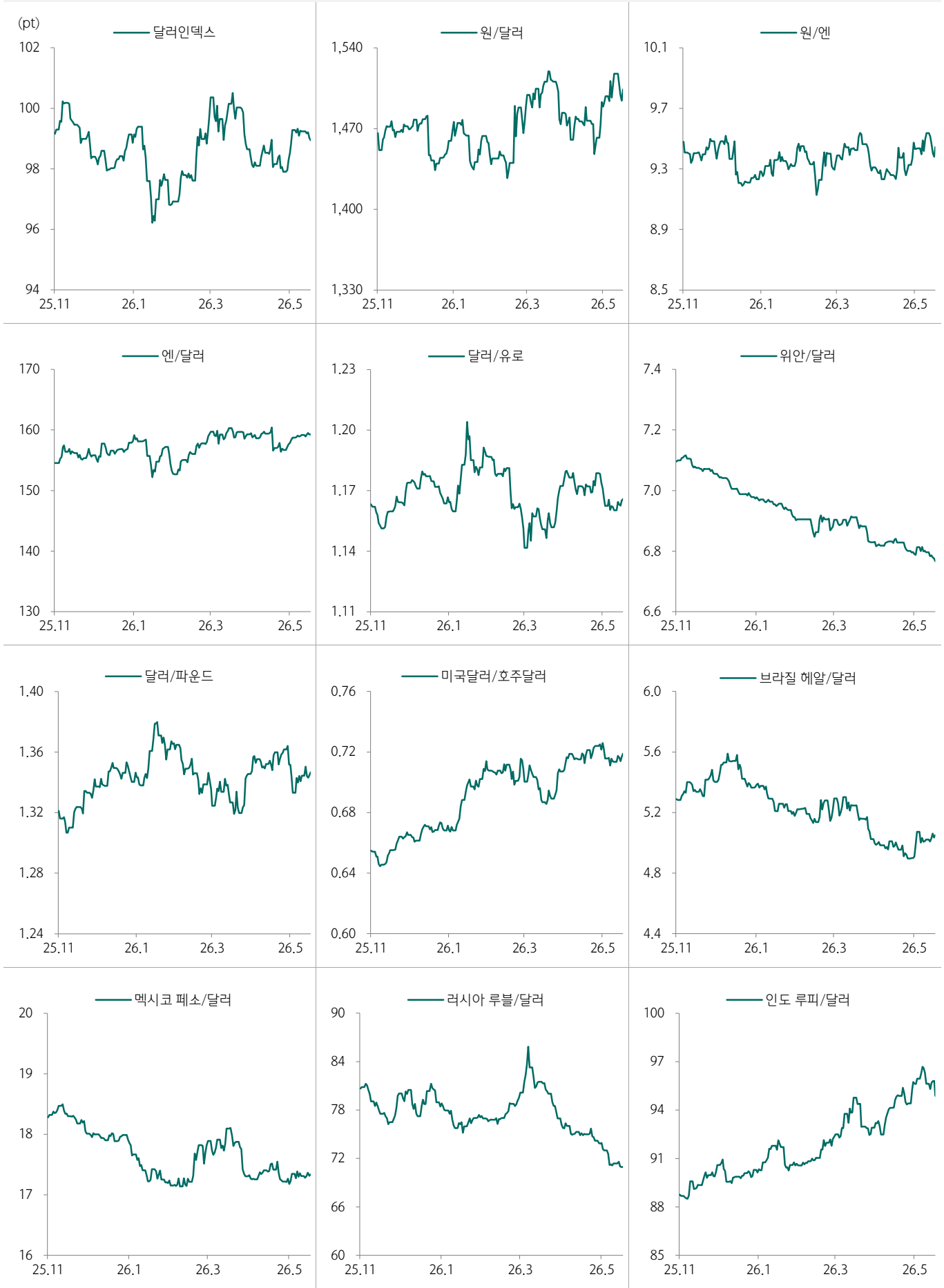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6월)				
일	화	수	목	금
1	2	3	4	5
HPE CRDO SAIC	PANW DG ULTA DCI GTLB VSCO BWLP SIG	AVGO CRWD MDT M PAYP FIVE SSL VEEV	CIEN IOT PL LULU RBRK COO GWRE DOCU AGX TTC TTAN	ABM CMCM VIRC
8	9	10	11	12
CPB MTN	CASY SJM CNM SAIL	GME CHWY THO	ADBE KR RH	FRHC
15	16	17	18	19
CVGW CGC	ORCL UEC WLY	ATEX	CAN JBL DRI CMC	FDS KMX
22	23	24	25	26
LEN	FDX SUNB WOR LZB	KFY KBH	NKE MKC AYI BB	
29	30			
TLK DRVN	CCL AVAV PRGS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b>6/1(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 (이전 55.3)</li> <li>5월 ISM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 (이전 52.7)</li> </ul>
<b>6/2(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월 미국 노동부 JOLTS (구인, 이직 보고서) (이전 6.866M)</li> </ul>
<b>6/3(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월 ADP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 (이전 109K)</li> <li>5월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 (이전 50.9)</li> <li>5월 ISM 비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 (이전 53.6)</li> </ul>
<b>6/4(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분기 비농업부문 생산성 (QoQ 이전 2.3%)</li> </ul>
<b>6/5(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월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MoM 이전 0.2%)</li> <li>5월 비농업고용지수 (이전 115K)</li> <li>5월 실업률 (이전 4.3%)</li> </ul>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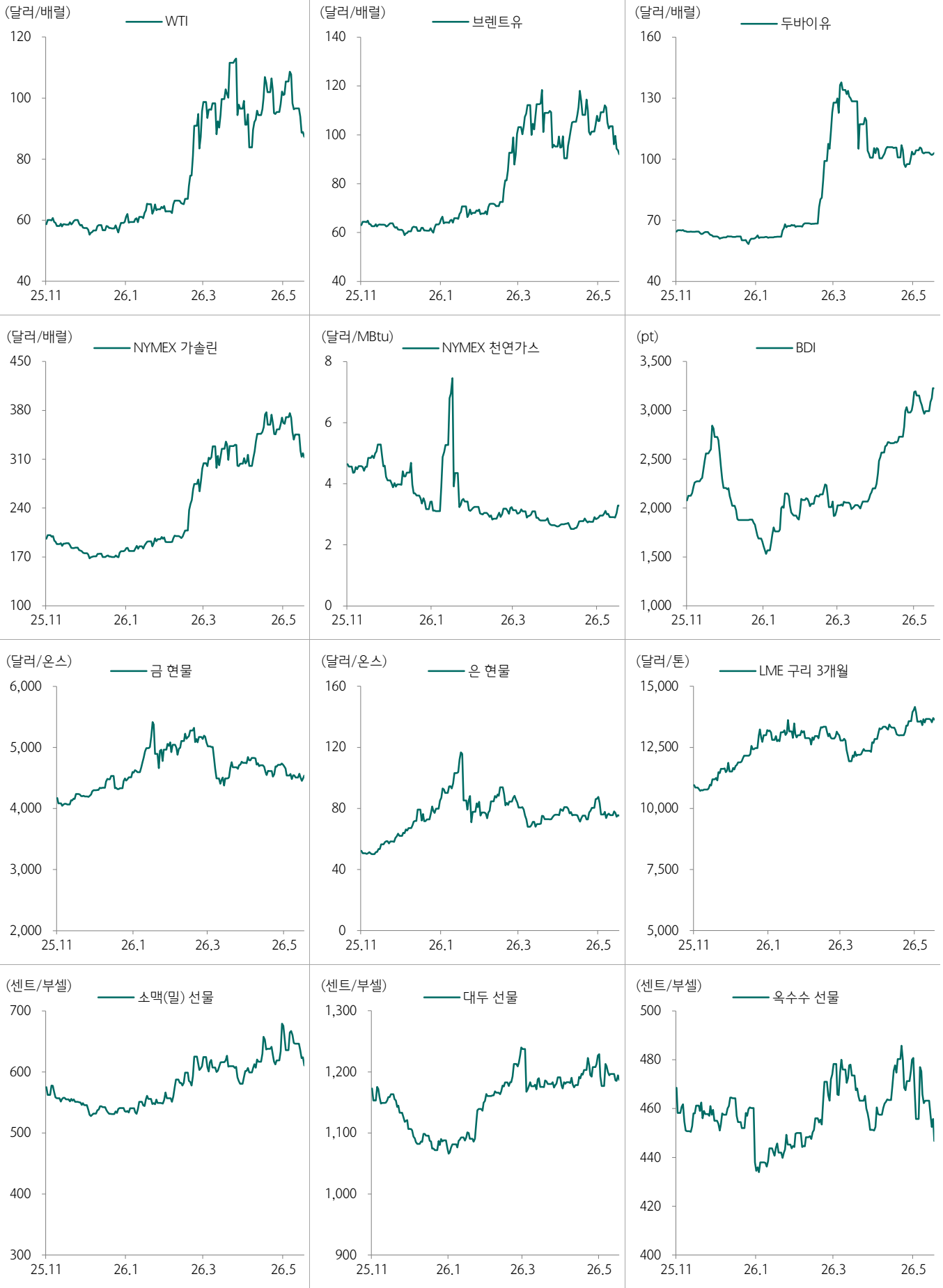
환율 추이



주요 금리 추이



주요 원자재 추이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6월 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6월 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